



종년봉사를 감사하는 기도

1999년
11월 15일
제 15 호
(1998년 9월 15일 발간)

춘천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춘천기독교연합회 제4차 정기총회 개최

회장 황영찬 목사, 차기회장 김주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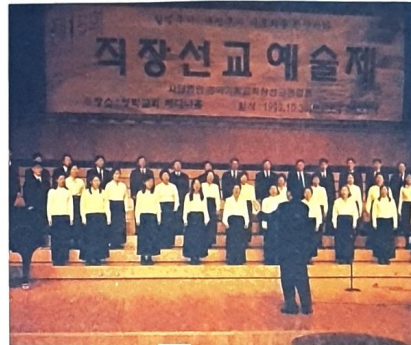
황 영 찬 목사

회 장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수석부회장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부회장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허종구 장로(중앙성결교회)
 총 무 김동희 목사(춘천감리교회)
 부총무 박상호 목사(제원장로교회)
 신재원 목사(삼천별결성결교회)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서 기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부서기 진진구 목사(평화장로교회)
 회 계 김동원 장로(영화장로교회)
 부회계 이종식 장로(소양강로교회)
 감사 김종만 목사(교동장로교회)
 홍성운 장로(석사감리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장(김광국 목사)은 11월8일 오전 11시 춘천침례교회당에서 총회를 주재하였다. 총회에서는 사업 및 재정보고가 있었으며 임기 1년의 임원선출이 있었다.

현임회는 1년동안 연례적인 행사외에 단군상 설치반대 및 신우상탑파괴를 위한 연합집회, 성서화를 위한 '99시민초청 연합복음 선교대회 개최 등 관공



춘천직장 연합성가대 전국예술제서 3위수상

지휘 김철수 장로, 6개직장 단원 39명 참가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이영규 장로)은 10월30일 오후4시 서울 영락교회 메디니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직장선교예술제에 연합성가대원, 연합회임원들과 함께 참가

했으며 춘천연합성가대는 시선1편 찬양으로 12개 참가팀 중에서 3위를 차지하여 우승트로피를 받았다. 대상은 광주 진남연합회 예배에 섰던 양단, 금상은 부산기독교직장

선교회 합창단이 차지했다. 이번 예술제 참가를 위해 석사감리교회에서는 찬양인양실 제공, 단원들의 서울운송 BUS, 봉고차량 제공 등 많은 지원을 했다.

추수감사예배 드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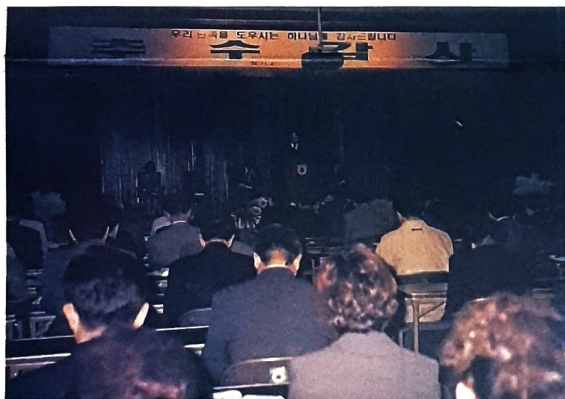
3년째 감사예배, 모든직장 교회 동참 감사

농협강원지역본부장(허 선장로)은 금년도 풍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교회지도자, 타 직장 선교회원들을 초대하여 본부 5층 강당에서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리고 오곡의 진미로 만찬을 나누는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광국 목사(성광교회)는 예배설교에서 인간을 보는 빌립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역설하였다. 농협본부장은 97년부터 매년 11월이면 직장 안에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교회와 직장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일 해왔다.

모든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금년하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봉의산에 기도의 단 쌓은 장로들

제2시대산 기도의 산 운동에 나선 일꾼들

춘천시민을 복복게 하기 위해 봉의산 기도모임을 계획하고 뜻을 같이 한 젊은 장로님들이 11월 12일 아침 6시 30분 봉의산 정상에 모여 기도의 문을 열고 마귀 사단에 제 선진기도를 했다.

춘천의 중앙에 있는 봉의산을 기도의 산으로 제2시대산을 만들어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넘치는 춘천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기도회가 계속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봉의산을 기도의 산으로 찬송과 기도말씀이 있게 하려는 것은 복의 땅으로 만들고 춘천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라는 상징성을 위한 것이다.

기도모임 준비위원회의 김동원 장로를 대표로 추대하였다.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는 기쁨이다.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 시인 송명익님은 낙성마비로 인해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살아 가고 있었다. 그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몇일간의 몸을 움 직여가며 고통에 겨워 눈물과 땀을 흘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추하고 고통스러워 주님께 원망을 했다. "주님, 나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이었으면 차라 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시 어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 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 수많은 감동의 시를 작사하였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영광나 이브실' '나의 손짓' '이 모든 사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순수한 고백이었다. 그의 생활은 곧 기쁨 으로 변하였다.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 로 여기며 기쁨 속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 였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감사하라! 감사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하며 기쁨이 온 기쁨에 가득차게 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며 주님 을 더욱 시모이게 할 것이다.

삶이 지겨워질 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께서는
 오늘 아침 내게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아시나이다.
 원지 오늘을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내게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당신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므로
 내가 하루를 지겨워하지 보다
 당신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지극한 사랑에 의지하여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필리핀 바를레이의 묵상기도)

춘천성시신문 타임캡슐에 담아

50년후에 캡슐열려 역사적 증거물로

춘천성시화운동 본부장(조남진장로)은 10월29일 강원일보사가 추진하는 타임캡슐에 춘천성시신문을 담았다. 이 자료는 속초국제관광EXPO장에 묻어두었다.

가 50년후에 개봉된다. 춘천성시화운동 2세대 3세대들에게 역사적인 증거와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로암(路岩) 청소년 선교회 창립

2000년 1월 4일부터 2월 4일, 중3,고1생 대상 교육기로

청소년 선도와 선교에 뜻을 가진 춘천 지역 목사와 평신도들이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공부를 쉬어하는 학생, 불우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건전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청신으로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로암청소년선교회"를 조직하고 지난9월17일 선교인 예배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 회장 김준연 목사, 총무 지용진 목사를 선출하였으며 첫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도내 학습부진 학생과 가정경제가 어려운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필요한 교육자료와 시설을 준비중에 있다.

우리지역 불우청소년 선도에 뜻을 가진 사람들의 동참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동심하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선거법 개정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3회 임법총회를 개최하고 감독선거법을 개정했다.

총회의 주요의제는 감독회장의 4년선임제와 총대수를 1천명으로 축소하는안과 목사, 장로의 자рын보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것이 주요쟁점이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으며 감독회장과 감독선거법 개정

에 수첨과 투표방식을 병행하는 제도를 채택하였고 감리교헌법인 교리와 정경 각 편의 용어와 조문을 정리했으며 목사고시원을 신설, 수련 복회자 과정을 두기로 하고 인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음악부를 문화부로 개칭하고 지방회와 연회의 분할 요건을 강화하는 등 30여개 사항을 개정 또는 보완했다.

감리교 남지방 연합부흥성회 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남지방 28개 교회연합 부흥성회가 11월 9일~11일까지 석사감리교회에서 열렸으며 경기연회 안

양지방 안양교회 담임목사 백문현 감독을 강사로 초빙하였다.



모닥불이 있는 작은 모임

온의감리교회(이정배 목사)는 11월6일 저녁7시 생발에 위치한 카페 "강물소리"에서 찬양과 음악회, 시낭송,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기독교 문화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 (0361)254-1188, 254-1005

역(逆)라마단 기도에 모든 교회의 동참을 바란다

이슬람교 30일 금식기도에 복음위한 기도로 맞서

이슬람교 무슬림의 라마단30일 금식기도가 12월8일부터 2000년1월6일까지 열린다.

이슬람 역은 태양력보다 매년 10일내지 12일이 짧아지므로 라마단 기간이 매년 바뀌게되며 라마단 기간이 완전히 한 번 순환하려면 약35년이 걸린다. 라마단 기간동안 그들의 생활은 애드거진 최대한 낮은 시간에 아침식사를 하고 세전 후에 금식이 끝난다.

라마단은 공동체 활동을 강조하므로 지내식사를 근처 무슬림 사원에서 함께 먹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 친구, 친척, 이웃을 초대한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은 타라위(Tarawh)라는 20개의 순시로 된 특별기도를 하며 함께 모여 한달동안 무관 전례를 낭독하고 마지막 10일을 더욱 신성시하며 밤새 기도과 구원을 낭독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逆)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슬람권에 복음의 돌파구를 열고 더 많은 사역자를 헌신케하기 위한 계획이다.

모든 교회, 모든 선교기관 단체 어린이로부터 노인들까지 무슬림들의 복음사역을 위해 믿음

으로 금식하며 기도드려야 하겠다.

개인, 교회, 선교회별로 시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예수전도단에서는 역(逆)라마단 기도를 돕기위해 소책자를 공급하고 있다. 경제사정으로 제작비 충당을 위해 권당 2천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라고 있다.

☎ 연락처 : (0361)252-1128 예수전도단 담당 장병지 간사



1999년 12월 8일 - 2000년 1월 6일

[홍천지방판]

◆홍천밀양선교회(회장 심진환장로)는 11월6일오후2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목회화를 위한 가을친양축제를 열었다.

◆정촌감리교회(정용진 목사)는 11월7일 노아의료선교단을 초청, 100명의 성도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홍천군선교회(회장 김자경장로)는 11월13일 오후2시 가족등반등반대회를 열고 홍천등반 신봉에서 수터사 계곡까지 자연보호활동을 벌였고 최다오를 수거자에게 상품상이 있었다.

◆12월중(일자 미정) 홍천회암장로교회에서 동강원노회 소속교회 여전도연합회(회장 이영자장사) 찬양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순 명예기자>



여전도회 교육 실시

춘천중앙감리교회(사공진 목사)는 10월28일 오전11시 김재규목사를 초청 동강원노회 여전도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회 내에서의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김연회를 가졌다.



춘천성지방 99연합부흥성회

권오서 감리사(춘천중앙감리교회)는 11월1일 저녁7시부터 4일 저녁까지 분당물곶감리교회 전용택 담임목사를 강사로 중앙감리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었다.



YMCA 창립50주년 기념식

춘천YMCA(이사장 장기호장로)는 11월6일 오후3시 강원평생교육정보관회의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회원결의대회를 가졌다.



춘천성시신문 명예기자 회의

김동원 명예기자 단장은 11월2일 오후6시 어린이회관에서 성시신문 명예기자회의를 주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21회 전국 평신도지도자 동계수련회

주제 : "새 일을 행하는 남선교회" (사43장19절)

할렐루야!

새천년을 맞는 새해 첫달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에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대 회장
이기종 장로



준비위원장
이태영 장로

- 일시 : 2000년 1월 20일(목) 15시~1월 22일(토) 11시
- 장소 : 충북 · 수안보 파크호텔 ☎ 0441-846-2331~6
(충북 충주시 삼도면 온천리 838번지)
- 강사 : 이유식 감독회장 외 10여명

※ 참가범위 :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원, 각연회연합회회원, 각지방, 각교회남선교회회원 및 평신도지도자

등록요령

- 등록비 : 사전등록(1999. 12. 15까지) 1인당 60,000원
당일등록(2000. 1. 20당일) 1인당 70,000원
- 신청방법 : 사전등록
등록비 입금 순서대로 행사장인 수안보호텔에 숙박을 우선배정함
당일등록
수용인원 초과시 타호텔에 숙박이 배정될 수 있음
- 등록비금 : 국민은행 303-01-0511-511 이기종
농협 212-01-028881 이기종
- 연락처 : 0371-733-7300 이기종
02-552-2311 이태영
02-2601-3811 권승달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 장 이기종 장로
동계수련회준비위원장 이태영 장로

동정



***김광국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은 11월4일 동행감리지역본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 설교하였고 11월8일 오전11시 춘천 침례교회에서 열린 기독교연합회 총회를 주재했다.



***한 군 목사**
춘천침례교회 담임목사는 11월 1일~12일까지 인도에서 본교회 개척 설립한 신학교 현안식과 6개 성교회(델리, 무르리, 오리디비드, 팔, 말로리, 스리니가) 부흥 인도와 15명의 목사 안수를 주재하였다.



***박상호 목사**
춘천제일교회 담임목사는 10월18일 오후2시 황성제일교회 건국 40주년을 기념하여 11월1일~3일 원주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감동교회 목사장로수양회에 참석했다.



***권순익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1월1일 오전11시 춘천침례교회에서 열린 감동교회 목사장로수양회에 참석하였다.



***김인태 목사**
춘천서기관교회 담임목사는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임원총회에 참가하였으며 11월2일 월 드비전 전교회에 참석했다.



***김준연 목사**
춘천서기관교회 담임목사는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임원총회에 참가하였으며 11월2일 월 드비전 전교회에 참석했다.



***황형현 목사**
춘천침례교회 담임목사는 11월 11일 오후 7시 World Vision 감동에서 있는 성서화 기도모임에 참석 설교했다.



***정상국 목사**
춘천침례교회 담임목사는 춘천지방회 목사들과 같이 10월25일~11월2일까지 태국 오지 원주 선교현장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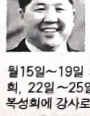
***이창호 목사**
사춘침례교회 담임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춘천 성서화 기도모임에 참석, 설교하였다.



***이정호 목사**
사춘침례교회 담임목사는 11월2일 오전9시 한계령 오색약수에서 열린 교역자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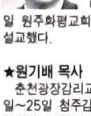
***이정호 목사**
사춘침례교회 담임목사는 11월2일 오전9시 한계령 오색약수에서 열린 교역자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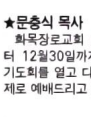
***이정호 목사**
사춘침례교회 담임목사는 11월6일~11월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 춘천지역 목회자를 위한 축복회와 강사로 참가하였으며 11월15일~19일 의정부 시에서 열린 춘천시 기독교 원주 목회자 강사로 참석할 계획이다.



***김인성 목사**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는 10월18일~21일까지 경북 포항제철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다.



***사공 정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1월8일부터 9일 남경성기도원(원장 김대성 목사)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14일 원주교회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문순식 목사**
화북교회 담임목사는 10월23일부터 12월30일까지 70일간 새벽5:40부터 기도회를 열고 다나엘사9월3일 말씀을 주제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김세연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18일~21일까지 경북 포항제철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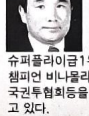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국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0월24일~25일 청주감리교회에서 가진 부흥사경회와 10월28일~30일 서울종교관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춘천남지방 목회자를 위한 위로회 배설 - 25개 교회 목사, 장로 참석, 속초에서 -

기독교대한 김치회 동부연회 춘천남지방 사회 평신도부(총무 한수경장로)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속초대명관에서 목회자를 위로하고 평신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실내에서 이루어진 놀이와 축구, 볼링 경기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원기복 목사(광정교회)의 김치회 임



교계단신

- ◆ **교역자연합회총회개회**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 정성교목사)는 11월 중 생남침례교회에서 총회를 개최 예정이다.
- ◆ **강남감리교회(윤병식 목사)** 성전봉헌예배가 11월1일 오전11시 춘천시 삼천동 신촌 교회에서 김명기 동부연회 감독과 권오서 춘천시지방 감리사 등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주 송담교회로 이전)
- ◆ **김치회 춘천시지방 '99연합부흥성회'**가 11월1일부터 4일까지 춘천중앙교회에서 있었으며 서울 분당불광감리교회 전용목 목사를 강사로 은혜 중만하였다.
- ◆ **춘천기독교 캠프(회장 노재창장로)**는 10월, 11월 중 춘천시내 8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회관들과 함께 성경책을 전달했다.
- ◆ **동부연회장로회(회장 유대태, 총무 심인섭)**는 원로장로회 위로회 준비를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다. (강사: 각별원목사 장소: 흥천원전경)
- ◆ **화천 빛내임교회 결사아동들이 음악연주회 열어**
- 단장 최현명 목사, 지휘 변성립 목사 단원 50명 참가 -
빛내임교회(단장 최현명 목사, 화천제일교회)는 화천군내 결사아동들이 위한 자신음악회 연주회 12월7일(화) 오후7시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주회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연주회가 될 것이다.
- ◆ **춘천교경협의 총회 개최**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회장 차덕수목사)는 11월11일 오전11시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총회로 모여 사업보고와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 ◆ **강원도기독교미션연합회**는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회관 춘천미술관에서 "제3회 강원도기독교미션연합회 회원전"을 열 예정이다.
- ◆ **제1회 춘천, 화천, 양구감리교회 목회자 친선 축구대회**
11월9일 오전9시부터 5시까지 춘천교경협의회에서 춘천북지방 주관으로 동·서·남·북지방이 참여, 축구로 친교의 장을 마련했다.
- ◆ **군복음화와 성가대회 개최**
군복음화를 위한 성가대회가 12월4일 춘천서기관교회당에서 열린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회 열어

김치회 춘천남지방 여성교인협의회(회장 정남남목사, 광정교회)는 11월 4일 광정감리교회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지방여성교인들이 직접 마련하고 준비한 옷, 음식, 화장품, 일용품 등을 진열하고 팔고있는 모습은 장외와 같았다.

축사에서 만든 빈대떡, 찜닭, 수육, 짜꾸미, 순대, 감자순전, 해물전, 차츰기는 1인분당 2천원으로 가격도 싸고 맛있다.

물품과 음식을 마련한 교회는 광정교회(고정목회장), 남춘교회(이순종목장), 동원교회(이경숙목장), 거두리교회(박정순목장), 장대교회(이만환목장), 광명교회(김정진목장)이며 이들은 앞으로 계속 바자회를 열어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했다. (여기까지 김부희 장로)



제1회 성서선교 테니스대회

지난 10월 9일 춘천농공고 테니스장에서 "성서선교테니스회 회장배" 정팔 경기대회가 있었다. (회장 이영일 장로)

성탄절 준비 교사 강습회 실시 계획 - X-mas 파티전도, 성탄절 축제 모델 시범교육 -

'99성탄절을 맞아 세속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참의미를 알려 예수인게 하는 "크리스마스파티 전도강습회"와 교회 성탄절 축제를 위한 "성탄절 축제 시범강습회"가 지역별로 열리며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바란다.

- ♡ 춘천지역: 11월22일~23일 (오전반) 10시30분~1시30분 (오후반) 6시~9시30분
- ♡ 철원지역: 11월25일 (오후반) 6시30분~9시30분
- ♡ 양구지역: 11월23일 (오후반) 2시~7시

강습회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30분	성탄절 축제 찬양 운동 강습	파티전도의 필요성
30분	성탄절 축제 개요 예절	성탄절 파티 전도 시범
1시간	성탄절 축제 시범 강습	성탄절 파티 전도 시범
1시간	A반: 미술과 장식 이렇게 B반: 성탄절 축제 운영과 기획 이렇게 C반: 성탄절 찬양과 운동	A반: 구원 강단법 B반: 파티전도 운영과 기획 C반: 성탄절 프로그램

*문의처: (0361) 253-1443
011-320-1443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춘천지회

제1회 중고생 겨울방학 영어·수학 교육 캠프 개설 - 경제 어려운 자, 공부희망자, 기독교인 자녀 등, 20명 대상 -

강원도내의 중3, 고1학생으로 영어·수학 능력 미달, 학습희망자, 불우청소년들을 위하여 로암(略畵)청소년 선교회는 도내 중3, 고1학생을 영어·수학 능력미달자, 학습희망자, 어려운 경제로 배움수 없는 자들을 위해 겨울방학기간을 이용, 학습을 돕는 캠프를 개설하여 지식 전달보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발표하는 능동적 학습 방법으로 교육한다.

- 교육기간: 2000년 1월 4일~2월 5일(학습교육)
- 교육교재: 수학-기본공통수학정식, 기본수학1의정식, 새학기교과서 영어-성문기초, 기본영어, 다양한 독해력 교재제공
- 전일강사: 변석규 목사(강원대 수학과출신, 미국버지니아 유니온 신학대학원출신)
- 학습장소: 로암선교회(춘천시 서면 당림2리)
- 학생선발기준(약20명): 학생본인의 희망, 경제 어려움자, 목회자 자녀, 기독교인 및 자녀
- 교사진발기준: 세례교인으로 영어·수학 전공자 또는 유사학과 전공
- ①교사정원 ②교회학교 교사정원(자원봉사 원칙)
- 교육캠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봉사하실 분 환영
- 봉사협력자: 찬양인도자(기타 등 연주자), 차량운행, 경제적 지원자
- 접수기간: 1999년12월27일~30일
- 연락처: (0361) 256-1260, 261-7640, 241-4316, 011-9799-3977
- 춘천성서선교회(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 후원금: 농협 301026-52-050431 예금주 김준연

주 관 로암 청소년 선교회 대표 김준연목사
후 원 춘천은혜교회, 서로사랑교회, 춘천침례교회, 성서선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 훈련합니다

"예수사랑운동"은 11월3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교회학교 중·고등부교사들의 교수능력을 돕기위해서 분야별 전문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과 목	시간배정	강 사
청소년 심리학	2	기림회 목사 (도림의료원 신장정신과장)
청소년 상담	2	기림회 목사 유인회 목사 (거성교회 학생회 교사)
청소년 성경공부의 실제와 인도	4	최창목 목사 (반석침례교회 담임, 예목단)
효과적인 Q.T	2	김수복 전도사 (거성침례교회, 예목단)
영적전령	2	조은재 장로 (메트로병원장, J-Men자문위원장)
종교지도와 지도력 인도	2	예수전도단 김선희 간사 (J-Men2사, 율리크교회)
청소년 문화와 현상	2	김선희 간사 고재민 목사 (영락침례교회, 예목단장)
청소년과 찬양	1	김수복 전도사
청소년과 예배	2	김수복 전도사
성서론	2	김수복 전도사
청소년 전도와 선교	2	여인이전도협회

- 장소: 메트로병원회와 4층 세미나실
-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7시, 9시30분 (총14주, 총28시간)
- 회비: 5만원 (교재비, 간식비 포함)
- 문의: 예수사랑운동(J-Men) ☎(0361)244-5400
- 신청은 30명만 가능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



이원호 목사
(소망성교회)

가정이란 말은 마음을 통솔하게 하는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1970년에 출판된 엘빈트일러의 「미래의 충격」이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파괴될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미래사회는 초산업과 사회가 되어서 생명공학이나 생식생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리드결혼, 실험결혼, 혼수자의 평생, 일부러서, 동성연애 등이 공공연히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토를라는 예언처럼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제도나 습관이 정착하려면 50년 내지 1세기가 걸렸는데 오늘날은 5년, 때로는 1년만에 모든 것이 정립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부모들이 생각속에 자식이 많으면 골치아픈 일만 많아진다고 하여 하나만 낳아서 살 길로, 우리대로 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동성연애라는 말을 들으면, 성소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어느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고 부모도 혼인신고할 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27절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라고 이미 말했었습니다. 또한 요한 8장12절에 대한 찬반의견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지 않아서 현실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명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 문명은 참된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

격을 무시하는 기계화시대, 로보트 시대가 되면 가정도 파괴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현실과 미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나와 후대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행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풍조에 우리 자신은 이길 수 없고 또 붕괴되어 가는 가정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과 말씀으로 내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므로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이말은 기도함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의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짐은 법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찬송은 가정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는 운동입니다. 집안에서 찬송소리가 가득해지면 그 가정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좋은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 CD도 많이 있습니다. 예약한 해마다 그 시간에 저절로 찬송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찬가 찬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부흥을 위해 새롭게 「기쁨으로 찬양」이라는 찬양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찬송이 넘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분 가정에 일주일 동안 찬송 한편이라도 불러보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결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과 말씀의 테이프들을 집안가게 올려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교육가에게 들었던가 암흑이었습니다. 한창 유행하는 대중가요가 흘러나와 서로 경연해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기쁠 수

가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고갈 상태가 되고 자꾸 매달릴 뿐이지 결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가족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기를 존경하는 것보다 거룩해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대가를 받겠다고 합니까. 이미 그 상생대는 거룩한 영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도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40년동안 살아왔습니다. 나이 80에

양육을 하고 있을때 타지 않은 가시밭길 불꽃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산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산곳은 성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광야와 같은 세상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내가 가서 서있는곳, 내가 걷는 곳은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 내직장, 이 혼탁한 사회, 국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오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국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기층까지 거룩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면 곧 이 사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만큼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서칼럼

생활속에 꽃피운 신앙양심

기독교인은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신앙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현자(賢者)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말은 아름다운 한 귀결로 우리의 컷선을 스치고 입술을 지나치는 악세사리라고도 같은 무력한 언어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양심을 본다면 그것은 속민강장 같이 외형만 있는 겉모습은 존재할 것이다.

성시화(聖市化)운동이란 기독교인들이 신앙양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에도 심어주므로 신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양심을 현실에 충실하고 융합 타협해야 하는 것으로 신앙과 현실을 별개로 보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신앙양심을 실행할 때 적용하고 있는 젊은 신앙인(홀리케리리 운동)이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세월이 있는 건물주으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사내

로 신고하면 신앙양심은 통보만 받았으나 그는 신앙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당국에 신고했으니 그 이유로 곤란을 비워달라는 압력을 받고있다.

오늘날 허물어지고 있는 신앙양심을 세우려는 젊은 신앙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실과 타협한 잘 된것을 어려움을 보면서도 신앙양심으로 살기 위해 결단한 젊은이의 믿음이 부럽기만 하다. 감탄할 말씀에 빠진 동태와 같은 그의 신앙심을 보면서 한국교회 앞날이 어둡지 않은 것을 느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사회생활속에서 이 젊은 신앙인의 실천력을 믿음으로 배우고 성숙에서 신앙양심을 표현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전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신앙양심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고 죽어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무장해져 존재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데 있어서 기독교가 두들기다면 그것은 신앙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충환)

이단, 사이버 종교집단 포교활동에 경각심을 여대생, 20~30대 주부 포섭이 주목표

수년동안 지하에서 웅크리고 있던 이단,사이버 종교단체들이 금년들어 적극인 포교활동으로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간접한 교회 성도들과 시민들은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워 가까운 교회 목사, 장로를 찾아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교회 단체의 이름부터 의문점을 갖고 어떤 계통인지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사이버 종교단체를 들면 「안상홍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로 시야1동 남부목장 2층(70명)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도사2명에 100명의 신도가 있다.

신도들은 20~30대 가정주부와 종교교 이학자들이 20대 청년신도들도 일부 있다.

「대순진리회」는 3개소가 있으며 사후 동 도교유치 후면 지상5층건물에 있는 「춘천회관」은 전인방면 소속으로 신간1명(여) 신도 200여명이기 회집하고 소양로3개 「춘천회관」은 서울방면 소속으로 2층 건물(40평)을 회소로 사용하고 남부 신

사1명이 「역학을 공부한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포교활동 중인데 인도는 30여 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원대학 구정문 부근에 대순진리회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

「JMS(국제크리스천연합)」는 정명직을 교주로 대관기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TV에 수차 보도되었다. 여대생들을 포섭 대상으로 대학에 동아리로 활동하며 성취를 특색으로 하고 있다. 동춘천신도학교

원 「영일교회」 석사후 「은총교회」 후원1동 「생명교회」 등 3개소가 있으며 신도는 20대전후 여대생 200여에 달하고 있다. 특징은 유행가에 찬송가 가사를 넣어 부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합시다」라는 등 교회로 위장, 진도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천주교도단체인(천도단)」은 10년전에 천주교로 개종하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로 구분하여 모이고 있다.

「여성교회」는 봉의동68번지 구천도전 건물에서 100여명이 회집하고 소양로1가 현대아파트 내 유치원을 관장하는 관사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성교

회」는 근화동 30평 건물을 사용하며 관장은 없고 신도회장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춘천침례교회」는 약사동 풍물시장 부근과 호지1동 현대생활화보전 건물2.3층(전 회지3층) 2개소에 있고 신도100여명으로써 장로3명이 주관하고 있다. 그들은 목사배도가 없고 기성교회의 제도와 금전적인 부조리를 따파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영광교회」는 호지1동 약사리교회 입구 2층(30평)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도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장로교회 1개소가 있으나 극히 미약하며 아직 광적인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동통교회, 왕곡교회(여호와의 증인), 불문교단이 있으나 조후회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미선교회 지사로 장곡,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집단은 20~30대 초반 가정주부 여자들을 대상으로 제세척하고 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상홍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와 20대전후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는 대순진리회와 JMS이다.

인도에서 일고 있는 도시 성시운동 열기 10개도시 선정 순회기도 세미나 내년 9월 보카로 대규모모전도집회

지난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비하르주와 보카로에서 열린 기도 세미나는 순회성시운동본부의 기도본과 위원장인 조은재 장로 일행이 참석했다.

인도의 비하르주는 인구가 1억 명을 90%로 인도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시사하듯이 전도가 지극히 힘든 곳이다. 비하르 주의 수도인 파르나는 이렇듯, 경은경 선교사가 30년 전까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며 비하르주를 복음화 하기 위한 전략을 순회성시본부와 연계하여 펼쳐나가고 있다.

이 곳 도시 성시회는 주요 관문도시 10개를 선정하여 각 도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기도세미나를 열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는 영적전투의 기도를 하는 등 여러가지 전략과 방법들을 나누고 협력하는 일이며 이 파르나, 한 지에서는 기도세미나를 하였다.

순회성시운동 1972년 시작되었던 성시운동은 인도의 파르나, 칸지, 보카로라는 도시에도 소개되어 서로 기도으로 연결하고 있다.

인구 250만명에 기독교인 500만 명에 안되었던 파르나에서는 요즘 놀라운 부흥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였고 올해 12월 한달간은 인도남부에서 제발라 주 C.C.C와 캐나다 C.C.C가 발문하여 도시전체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축조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보카로시는 약 40년전 칠강도시로서 건설된 곳으로 깨끗하고 시민들의 자부심도 높았으나 초창기 멤버들이 은퇴한 이후로 시민들의 비전이 없어지고 범죄가 늘어나 경찰들의 비전도 전락했다고 한다.

보카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소수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시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운동을 펼쳐나

가고 있는 도시가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영길 선교사를 통해서 순회성시운동본부에 요청하여 이번 기도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도시와 도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결단이 일어났으며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환상과 예언도 있었다.

내년 9월에는 보카로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갖고 비하르주의 남아있는 7개 관문도시에서 7~8명씩의 기독교공대를 파송하여 영적전투의 기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지금 전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와 현상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순회성시운동과 같은 비전이 더욱 확산되어 「제 여부살렘」을 소망하는 도시가 수없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기정희 열매기자)

창조과학회 2000년 주요 연구활동에 동참을...

내년부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혜, 바벨론, 아라라 등 창세기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성경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들켜주 목요일 월례세미나를 통해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론 월례 세미나(대중강연회)
일: 매월 두 번째 주일 후 오는 목요일 (3/16, 4/13, 5/18, 6/15, 9/14, 10/12, 12/14)
장 소: 창조아카데미 강의실 (우방로49303)

●교회에서 세미나를 유치하기 위한 시연 장소변경 가능함이다.

●창조아카데미 개강
참 학기: 3월 6일 / 가을학기: 9월 4일

●창조과학회 학술답사 일정
-출발 두 달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명 이상 신청시에는 원하시는 일정으로 변경가능함이다.

-청소년여름캠프는 성경적 교육실현을 위해 하고 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창조과학회 장학 지원사업

(학생선발배의유학)
1주와 기준 100,000원 이하, 액수 제한 없으며 배의 유학 참여 희망

(입금처: 국민은행 743-21-0083-721 예금주:창조과학회)
☎ 02-2649-5412,5415

창조과학회 학술답사

주요루트	답사예정일	주요 일정
구약성경배경지① 고대메소포타미아	1월12일-22일	고레스 다리요물, 이쉬아에르, 에스도알비유적 지 수산강/ 엘람의 궁터/ 초가잠빌/ 메데의 궁터/ 페르세폴리스/ 파르사기데/ 하미단/ 에스피탄/ 테헤란/ 루르미에(동방박사무덤)/ 케르만(인)
특징의 루트①	5월17일-25일	시리아(다마스쿠스/ 하마/ 예루살렘/ 우가트)/ 알레르/시리아(아람/미르/ 팔미라)
특징의 루트② 홍수 이후	8월15일-23일	테마는(두로/시몬/베르가/베르가/ 베르가)
구약성경배경지② 메소포타미아	10월2일-12일	앙카라/ 산트로프르(아브라함 출생지)/ 하란/ 들의 무덤/ 아람의 무덤/ 네무루스/ 아타루르/ 칸/ 남호수/ 아라트산
청소년 여름캠프	7월25일-8월5일	오르단(암만/ 거리사/ 느보산/ 메드비/ 사해/ 압축)
		아라(비히드/ 바벨론/ 보르시마/ 사이라/ 잇수르/나눔/ 아람의 무덤/ 모술/무르/무르)
		중국내 통급지치구(영고구르 영토이며 고구려 의손족인 정지신진의 출생지인 대초원에서 별교과를 할 계획)